

반군 홍경래에 대항한 관군 가산군수 정시의 군인정신에 대한 연구

정 재 극*

요 약

조선후기 민심을 업고 반군이 등장하게 된다. 홍경래는 지역, 신분적 차별 등을 내세워 불만세력들을 규합하여 관군과 전투를 벌이게 된다. 초전에 가산군수 정시에게 항복을 권하고 함께 반란에 참여하기를 강요하였으나 정시는 죽음으로 거부하였다. 주변 관리들은 항거하지 않고 반군에 항복하는 행태를 보였다. 홍경래의 난이 평정되었을 때 가장 피해를 본 부류는 홍경래의 선전선동에 속아 가담한 백성 2천여 명의 죽음이었다. 반란 초기에 관군의 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하였다면 무고한 백성들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반군에게 항복을 거부하고 죽음으로 대항한 가산군수 정시에 대해 역사적 재조명이 필요하다.

A Study on the Military Spirit of the Governmental Army's Gasan County Chief Against Rebel Hong Gyeong-rae

JaeKeak Jung*

ABSTRACT

Rebels emerge after the late Joseon. Hong Gyeong-rae will fight against the military by gathering dissatisfaction forces with regional and status discrimination. Gasan supervisor Jung - Si in the first battle. He urged him to surrender and participate in the rebellion, but Jung - Si refused to die. Surrounding officials did not protest and surrendered to the rebels. When Hong Gyeong-rae's rebellion subsided, the most damaging thing was the death of 2,000 people who were deceived and joined by Hong Gyeong-rae's propaganda. There would have been no death of the innocent people if the officials in charge of the government had actively defended them at the beginning of the rebellion. There is a need for a historical study on the time of the Gasan supervisor Jung-Si , who refused to surrender to the rebels and fought with death.

Key words : Government army, Rebel, battle, surrender

1. 서 론

조선은 전국의 지방을 8도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8도 가운데 조선 지배층의 상당수는 이른바 삼남 지역이라고 불리던 영남·호남·호서 지역에서 배출되었다. 한반도의 북부 지역에 위치한 함경도와 평안도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당시의 평안도는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없었고, 서울 사대부는 이들과 혼인하거나 벗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지리적, 경제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후기 들어 상인이 융성하고 광산이 개발되어 부가 축적되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세력들 중심에 홍경래가 있었다. 홍경래는 치밀한 준비를 거쳐 지역의 민심을 바탕으로 난을 일으키게 된다. 홍경래는 1811년(순조11년)12월에 난을 일으켜 1812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정부군에 대항한 인물이다.

홍경래가 난을 일으킨 사정은 서북인의 푸대접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이를 이용한 홍경래 개인의 정권 탈취 기도라는 설과 주도층과 농민층 분해 과정에서 성장한 부호, 부농, 서민지주, 사상인 및 일부 몰락한 양반지식인 등이 광산노동자·유민·빈농을 동원해 일으킨 반봉건농민전쟁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당시 조정의 무능과 부패의 결과가 결국 민심의 지지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난이 발생한 가산군에는 가산군수 정시가 있었다. 당시 관아에는 소수의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인력만 유지하고 있어 반군과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패한 정권이지만 국가의 녹을 받는 신하의 위치에서 반군에 항복하지 않고 죽음을 택한 관군은 가산군수 정시가 유일하다. 무인으로써 명예도 중요하겠지만 삶에 대한 욕구의 무게도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사후 국가에서의 칭송이 후대에 까지 전하게 되었지만 조정의 부정부패에 항거하는 농민군에게 저항하였던 관군이었던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그동안 홍경래 난에 대한 연구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군사사적인 시각에 의한 가산군수 정시에 대한 연구는 누락되거나 미비한 수준이다[1].

본 논문은 문학적, 사회적 현상의 시각보다는 무인으로 귀감이 되었던 부분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군대가 정치와 민심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반군과 맞서 싸워 죽음으로 지켜낸 무인 정시의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군인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2. 조선후기 반군과 관군의 역사적 고찰

조선은 1800년대 들어서 홍경래의 난을 시작으로 임술, 장흥, 삼남, 은진, 공주, 상주, 진주, 동학 농민봉기로 이어지게 된다. 백성들이 민란을 하게 된 이유는 어차피 죽을 거라면 싸우다 죽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시대상 때문이었다. 왕권이 약해짐에 따라 세도가들이 득세하게 되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백성들로 부터 수탈을 자행함으로써 불만세력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이는 조선후기 철종시기에 7개의 민란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평안도는 정부의 통제력과 향촌의 지배질서가 상대적으로 약하였던 반면에 상업의 발달 등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가 급격하였고 신분적 통제가 삼남지역과 비교하여 다소 약하였다. 백성들의 일체감은 강하고 진보적 사회세력이 성장하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2].

2.1 홍경래의 난 배경

홍경래의 난(洪景來의 亂)은 1811년(순조 11년) 음력 12월 18일(양력 1812년 1월 31일)부터 1812년(순조 12년) 5월 29일(음력 4월 19일)까지 홍경래·우군칙 등을 중심으로 평안도에서 일어난 넓은 의미에서의 농민 반란이다. 당시 사회·경제적인 역량이 성장함에 따라 여러 사회모순에 대한 저항의 분위기가 확산되어 갔다. 교육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지식인이 양산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무사로서 입신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문무 과거의 급제자를 크게 늘렸지만, 종래의 관직 체제와 인재 등용 방식으로는 더 이상 그들을 포섭할 수 없어 불만 세력은 점점 늘어났다. 특히 평안도는 활발한 상업 활동을 바탕으

로 빠른 경제 발전과 역동적인 사회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중앙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 되었고 지역민에 대한 차별대우가 있어 정권 타도를 목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다.[3].

2.2 홍경래 반군의 전투 현황

홍경래 반군의 진격로를 일자별로 정리해보면 12월18일(양 1812년 1월31일) 가산과 곡산 진출을 시작으로 12월19일(양 1812년 2월1일)정주, 12월20일(양 1812년 2월 2일)박천, 12월24일(양 1812년 2월6일)선천과 철산, 12월25일(양 1812년 2월7일)구성과 태천, 1월2일(양 2월14일)용천 진출 등으로 보름간에 걸쳐 충청강 이북을 대부분 장악하는 기세를 보였다. 이것은 홍경래 반군이 우수한 점도 작용한 것이지만, 각 지역에서 내통한 세력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치밀한 계획에 의해 단시간내에 평안도의 여러 군현들을 전격적으로 점령하였지만 직접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지는 못하였다.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하기에는 반군에 가담한 핵심세력이 적었으며, 행정실무에 능한 인물도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2.3 점령지 관리

홍경래 반군 들이 관군관할 지역을 점령 후 수령의 관인과 병부의 확보에만 집착하고 점령지의 치안과 방어를 담당할 새로운 조직체계를 세우지 않았다. 또한 정주성 전투에서 기존 관아와 향교의 시설이 파괴되지 않은 것을 통해 강한 폭력성이 포함되지 못한 반란이라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반군의 지도부가 선택하는 통제 방식은 기존의 행정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4].

홍경래 반군은 복장도 일반인과 차이가 없었고 반군의 상징적인 비표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주로 수탈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사회저층의 빈곤층 이익까지 포괄하는 사회혁명적인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지도부는 조직적이었으나 하부조직은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었다. 홍경래 반군 지도부 층에 가담한 자들은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인물이 많아 사회개혁적인 제도의 변화와 지역민

의 통합을 이루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홍경래 반군이 장악한 지역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지배층만이 바뀌고 기존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2.4 홍경래 반군의 진압

정부군은 중앙군과 지방군, 의병의 3개 세력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홍경래 반군을 괴롭힌 것은 의병이었다. 의주와 정주가 함락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의병의 활약 때문이었다. 의병과 반군은 어느편에 서있느냐에 따라 갈라졌고 의병이 정부군의 입장에 서게 된 것은 기회주의적인 입장에서 지역 지배질서를 새롭게 개편하려는 향권분쟁의 연장선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5].

정주성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동안 홍경래 반군은 부녀자를 밖으로 보내 식량을 절약하며 버티고 있었으나 장기전에 돌입한 상태에서 봄이 되지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4월19일, 난을 일으킨 지 5개월 만에 관군이 설치한 폭약에 의해 성벽이 폭파되면서 진압되게 된다. 관군은 10세 이하의 어린이와 여성을 제외하고는 2천여 명에 달하는 장정이 죽임을 당했고 홍경래는 전사하게 된다. 점령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한 이유는 지역민의 내용을 통해 있을지 모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6].

2.5 가산군수 정시

홍경래의 난에서 반군에게 항복을 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관군은 가산군수 정시가 유일하다. 지역 민심을 등에 업고 당장 살기 위해 반군에 항복하고 그들의 명령을 받아 활동하였던 주변의 관료들은 난이 평정된 후 책임을 물어 처형되었다. 정시에 대한 문헌에 따르면 1768년 출생하여 33세(1800년/정조 24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 도총부를 지내고 1811년에 가산군수 통훈대부겸 가산진 병마절도사 나간 그해 12월 18일 이희저와 홍경래의 난에 가담한 반군이 본군을 먼저 침범하니 적을 꾸짖으며 저항하였으나 끝내 살해당했다 [7].

정시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가산이 수복된 이후인 1월7일, 평양감사 이만수(李晩秀)의 서목(書目)에서 알 수 있다. “그 날 난리가 일어난다고 민심이 흉흉하고 군내가 떠들썩하며 백성들이 피난가려 하자, 그는 홀로 말을 타고 군내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회유하여 피난가는 것을 중지시켰다. 그러나 봉기군 50여 명이 관아에 돌입하여, 살고 싶으면 인부(印符)와 보화를 내놓고 항복문서를 쓰라고 하자, 그는 ‘내 명이 다하기 전에는 항복할 수 없다. 속히 나를 죽여라.’ 하고, 그들의 대역무도함을 꾸짖다가 칼에 맞아 죽었다. 그의 아버지 역시 그대로 적의 칼을 받았다.”고 하였다[8].

2.6 가산순절록

가산순절록은 청주정씨 문중에서 정시의 아우 정질이 반군의 창에 찢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당시 상황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필사본으로 내려오는 것을 정시의 현손 정두용과 삼종손 정오영이 1930년도에 간행하였다. 권1~3은 정로의 사적이고, 권4는 종합된 것이며, 권5~7은 정시의 사적을 기록하고 있다. 권1의 「충경공순절사실(忠景公殉節事實)」은 정로가 선비의 몸으로 아들을 따라 가산관아에 가 있었던 사실, 1811년(순조 11) 12월 홍경래의 반군이 가산을 침입한 사실, 아들 정시가 절의를 지켜 순국한 사실, 아들의 뒤를 따라 적에게 굴복하지 않고 순절한 사실들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경상도유생박해수등상언(慶尙道儒生朴海壽等上言)」은 1858년(철종 9) 경상도의 선비 1백여 명이 연명 상소한 것이다. 정로의 충절을 높이 찬양하고 그 공로에 따른 시호를 내려 줄 것과, 형과 함께 있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몸으로 아버지의 몸을 가렸으나 홀로 살아남은 정질(鄭堉)에 대해서도 벼슬을 내려 절의를 포상해야 됨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로 이조판서의 증직이 내리고 충렬(忠烈)의 시호가 하사되었다.

권4의 「충렬공일기(忠烈公日記)」는 생존한 정질이 쓴 1811년 12월 18일에서 다음해 1월 18

일까지의 사건 기록과, 종형이 쓴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의 반장 기록(返葬記錄)이다. 그밖에 정주(定州)의 수난한 곳에 사실 기록을 남겨 후세에 전하려고 한 「정주충의단사적비명(定州忠義壇事蹟碑銘)」과 일생의 사적을 기록한 「신도비명」 등이 있고, 공적의 조사·처리 과정과 포상의 실시에 따른 각 조건의 왕복 문서인 「회계」·「계」·「장」 등이 있다[9].

3. 반군과 관군의 역사적 실체

홍경래에 대해서 의적 또는 백성의 원성을 대변하여 난을 일으킨 의로운 인물이라는 평가로 홍길동전, 전우치전 등과 동일한 문학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는 시각은 다양하여 해석상 다르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10].

3.1 부정적 기록

진중일기, 안능일기, 순절록은 홍경래에 대해 일기형식의 부정적 기록이다. 진중일기는 12월18일부터 이듬해 6월20까지 의병으로 참전했던 현인복의 시각으로 서술되었고 안능일기는 병마절도사 이해우가 지방군의 통솔에 대해 일기체 형식의 글이다. 각 지방 수령들이 어떻게 대처했고 동정과 교체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순절록은 정시의 동생이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후대에 추가적으로 보완한 내용이다. 안능일기에도 정시와 아버지, 아우가 절개를 지킨 사건과 표창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부정적인 내용은 서술자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므로 봉기군이 일어난 필요성과 민심 반영은 배제하였다.

3.2 혼재된 기록

신미서란, 신미록 등은 야담과 소설형 기록으로 양쪽내용이 혼재된 기록이다. 신미서란은 한문을 바탕으로 언문의 토를 단 것으로 양반층 개인이, 난이 평정되고 논공행상에서 불공정을 비판하는 등의 견해를 지닌 비판적 서적이었다. 홍경래 난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을 가지고 있

다. 신미록은 관군을 따라 다니며 기록한 실록으로 난이 진압된 후 50년 후 출판되었다. 반역의 내용을 소설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상업적 출판을 하였다. 홍경래의 죽음에 대해 적대감이나 대결할 의향이 갖고 있지 않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관군과 반군 양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부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관군을 편드는 내용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작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

3.3 긍정적 기록

홍경래실기1,2, 홍경래전 등은 소설형식으로 홍경래에 대해 긍정적 기록이다. 홍경래실기 1, 2는 신미록과 마찬가지로 관군에 중군하였던 기록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홍경래 반군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시대가 영웅을 품지 못해 처참하게 패전하였다는 논리는 홍경래 영웅 만들기를 위해 쓰여 졌다는 것이다. 반면 가산군수 정시를 가산 토반 이회저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살해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홍경래를 긍정적인 인물, 관군을 비판적으로 시각을 가진 작가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홍경래 전은 홍경래의 출생과 가계, 총명하고 반항적 기질을 타고 났음을 구체화 하였고 관군과 동등하게 군으로 명하고 관군의 잔혹상을 강조하고 있다. 각지의 인재를 구하는 과정과 거사당시 대원수의 복장으로 단에 올라 하늘에 제를 올리는 묘사는 신격화시키려는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사회적 불의에 항거하는 영웅으로 후대에 전하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목적으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11].

4. 현대 군인정신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남북으로 갈린 세 계유일의 분단국가이다. 주변 강대국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과 동맹을 돈독히 하고 있으나 정권이 교체되면 소원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군인은 정치와 거리를 둔다고는 하지만 정치인의 의지대로 임명되는 최고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군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홍경래 반군의 근거지인

현재의 북한지역에서 남침이 발생한다면 정권의 요구와 상관없이 즉각적인 응징만이 진정한 군인정신일 것이다.

4.1 현대적 정권 교체양상

현대에 이르러 반란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정권교체만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국민들의 참여 형태인 촛불혁명처럼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해임하고 중도에 정권을 바꿀 수 있다. 둘째 선거를 통하여 정권교체를 하여 새로운 집권세력에게도 기회를 주는 힘은 국민에게 나오고 있다. 셋째 남북의 긴장관계를 이용하여 새로운 군부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증명해주고 있다.

선거에 의해 교체된 정권은 전체의 동의가 아닌 다수가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이끌고 있지만 반대세력에 대한 불만을 제압하는 방법으로 군부를 정권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권은 군 길들이기를 통하여 정권에 맞는 인물을 주요직위에 보직하고 국가통치에 활용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군 수뇌부는 적만 바라보도록 해야 함에도 정치적 향배에 따라 군을 운영한다면 결국 싸워 이기지 못하는 군대로 전락할 것이다.

4.2 군인정신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의 적은 북한군과 북한정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주변국가도 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를 침범하였던 중국과 일본 사이의 지리적 환경은 언제라도 분쟁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 일본과는 독도 갈등, 중국과는 북한의 지원세력으로 불과 반세기전에 적으로 싸웠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일본과 중국 관계, 미국동맹과의 신뢰에 변화를 준다면 안보에 대한 불안은 증폭될 것이다. 결국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며 다시 군을 전면내세워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 하려는 세력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군인은 어떠한 정치세력에게도 편승하지 말고 오로지 적과 싸워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면 이기는 강한 군인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정권을 무력으로 탈취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민중을 선전

선동 했던 세력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정권을 잡으면 보상을 톡톡히 받았던 교육의 효과는 이익을 위해 국익을 망각하고 적에 이로운 행동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소용돌이에도 군인은 의연하게 절개를 지키고 죽음으로 반군에 맞선 가산군수 정시의 군인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5. 결론

홍경래 반군을 죽음으로 지켜낸 가산군수 정시는 무과에 급제한 무인이었다. 정부의 무능함과 백성들의 원성을 선전선동 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던 반군 세력으로 부터 죽음으로 항거한 유일한 무인이었다. 폭력적인 반군에 맞서 죽음을 구걸하지 않고 대항한 무인에 대한 평가를 재조명할 때이고 군사적 관점에서 영웅적 행동을 발굴하여 군인정신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군은 6.25 전쟁시 육탄 10용사에 대한 영웅적 행동을 후대에 전하고 있다. 죽음이 두려운 전쟁터에서 몸으로 포탄을 들고 전차와 함께 산화하겠다는 상황은 정상적인 정신으로는 행동할 수 없다. 평소 정신교육을 통하여 영웅적 행동을 칭송하고 미화해 주어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2의 육탄10용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인은 국가 위란에 대해 생명을 바쳐 지켜낼 사명을 가지고 임무수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홍경래의 선전선동에 속아 참여했다가 죽임을 당한 2천여 명 백성들의 원한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폭력적인 난을 일으키고 관군을 살해하고 백성을 선전선동 하여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홍경래는 군사적으로는 그저 반군일 뿐이다. 새로운 세상, 유토피아를 꿈꾸며 일으킨 반란은 무수히 많다. 그런 유토피아를 건설한 역사적 사실이 없다는 것은 반란을 통해 세상을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 보자는 욕심이 컸기 때문이었다. 백성을 위해서 일어난 봉기라는 명분으로 권력을 잡으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믿는 반군의 행태야 말로 허구적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

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부정한 사회에 대해 봉기할 상황이라면 무력을 사용하기 보다는 촛불혁명과 같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여야 하며 반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죽음 앞에서 의연하였고 반군에 맞서 절개를 지킨 가산군수 정시를 통하여 군인의 최후가 죽음이 될 지언정 행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거하는 군인정신으로 계승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고석규, 18세기말 19세기초 평안도지역 향권의 추이, 한국문화 제11권, pp389-400, 1990.
- [2] 김봉곤 조선말기 노사학과 군정개혁과 그 의의 군사 제83호, pp259-284, 2012.6.
- [3] 노성미, 홍경래전승의 양상과 변이연구, 경남대학사학위논문, pp9-28, 1993.
- [4] 심재우 조선후기 훈련도감 군법의 특징과 효시형의 집행양상, 군사 제101호, pp303-327, 2016.3.
- [5] 오수창, 홍경래 봉기군의 최고지휘부 국사관논총, p46, 재인용, 1993.
- [6] 오수창, 18-19세기 동아시아 역사에 비추어본 홍경래 난의 성격, 한림대연구결과보고서, p29, 2003.
- [7] 오수창 19세기초 중국 팔괘교난과 비교한 홍경래 난의 정치적 특성, 대동문화연구 56권, pp234-238, 2006.
- [8] 유동호 18-19세기 충청병영의 편제와 제정 군사제 84호, pp194-227.2012.9.
- [9] 유동호, 이석린 조선후기 하삼도 지역의 군사편제와 군병조직, 군사제93호, pp191-229. 2014.12.
- [10] 정달용, 청주정씨 대동보 9권 p950, 2002.
- [11] 한국군사사8, 조선후기 II, 육군군사연구소, pp395-428, 2012.

————— [저 자 소 개] —————



정 재 극(Jung, JaeKeak)
1990년 학사
1996년 석사
2013년 박사
2011년~20년 수성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입학홍보처장
20년~ 연성대학교 군사학과,
경찰경호보안과 교수/학과장